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b>보 도 자 료</b>		<b>이제는 인천입니다</b> <b>2025 APEC INCHEON</b>	
배포일자		2024년 5월 14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가공식품팀장 • 담당자	유 경 철 한은나래	☎440-2796 ☎440-279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식품안전의 날 맞아 건강한 인천 다짐

- 14일 애플광장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식품안전 홍보·체험관, 우수식품 판매전, 퀴즈 이벤트 등 프로그램 풍성 -

인천광역시는 5월 14일 시청 애플광장에서 제23주년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인천 식품업계 시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식품안전기본법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인천’을 주제로 △식품 안전 유공자 포상(시장상 10명, 시의회의장상 5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3명) △식품안전다짐 결의문 낭독 △식품안전 퍼포먼스(박 터뜨리기)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식품안전 홍보·체험관 △인천 우수식품 특별판매전 △식품안전 행운볼 퀴즈 △인천 관광공사 연계 인천e지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며, 식품안전

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는 대형 윗놀이 퀴즈 이벤트와 해썹(HACCP) 인증마크 찾기 이벤트를 준비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식품안전교육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을 더했다.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의 대표 식품제조업체로 (주)cj제일제당, (주)동서식품 외 3개소는 자사 우수식품을 홍보했고, 중·소 식품제조업체 29개소는 150여 품목을 시중보다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체험 활동과 함께 제품구입 시 받은 스탬프를 모은 시민들에게는 식품안전 홍보물을 배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식품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닌 산업이자 문화이며 국가 경쟁력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식품안전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인천의 식품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인 5월 7일부터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해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 식품인증마크,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품 소비기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를 홍보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시청 애들광장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안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시청 애들광장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식품안전다짐을 하고 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